

전국 1등
지역명품

⑤ 강진청자

천년의 비색 재현 한국 넘어 세계의 명품으로

강진 청자의 브랜드 파워는 시장규모와 비교하지 못할 만큼 크다. 강진이 청자 판매, 청자와 관련된 축제 및 관광 등으로 1년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200억원 안팎인데 반해 강진 청자가 갖는 무형의 브랜드 가치는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는 강진이 고려청자의 분항이라는 이미지를 오래전부터 구축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강진 고려청자의 역사는 일제강점기인 19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일본인이 청자터(요지)를 발견한 것을 시작으로 수차례 현지조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본격적인 붐에 오른 것은 국립중앙박물관이 4년여의 발굴조사 끝에 1963년 사적지로 지정하면서부터다. 지표조사를 통해 대구면과 칠량면 일대에 188기의 고려청자 요지를 발견하고 이 가운데 105기가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고려 청자하면 강진'이라는 관계가 성립됐다.

1977년 청자재현용 전통요인 '강진요'가 만들어지고 이듬해 2월 천연유약을 바른 고려청자 재현에 처음으로 성공하면서 천년만에 고려청자만의 비취색을 되찾게 된 것은 상업적인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 강진 청자는 이때부터 군 지역과 민간 요에서 활발하게 고려청자를 재현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이끄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강진 청자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크지 않았다.

청자 축제·판매·관광 등 연수의 200억원

아시아나항공서 판매 국제적 위상 높아져

2000도에서 소성해 강도에서 탁월한 고려청자가 생산되고 유럽과 미국 전시회를 통해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상업적인 성공 가능성을 키웠다. 2009년 고려청자문화특구 지정은 강진에 제2의 중흥기를 안겼다. 특구지정으로 대구면에 대규모 도예촌 조성, 청자체험교육 및 관광 홍보사업이 진행되자 청자에 관광이 더해진 6차 산업의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

강진군은 지난해 청자축제로만 100억원의 직·간접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뒀다. 여기에 개인요에서만 매년 40억원이 넘는 고정 매출을 올리고 있고 토요일매를 통해서도 꾸준한 판매 실적을 거두고 있다.

올해부터는 강진군이 청자박물관 운영 체계를 28년만에 민간 업체 지원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해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과 연구개발 성과를 민간 업체에 지원함으로써 이들 업체의 자생력을 키울수 있기 때문이다. 이달부터는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전 노선에서 판매를 시작해 국제적인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3개국 71개 도시 91개 기내 면세점에서 강진 이름을 달고 외국인에게 고려청자를 판매하게 된다. 강진군 관계자는 "강진 고려청자는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쌓아온 브랜드 파워가 있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 명품이 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연적



주병



매병



향로

전남복지재단 설립...복지 수준 높인다

전남도 아제 발기인총회

재단설립 주요 정책 확정

전남도는 4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박준영 도지사를 비롯한 각계 기관 단체장과 사회복지협회장 등 33명의 발기인이 모여 전남복지재단 설립 발기인총회를 가졌다.

전남도는 이날 총회를 통해 재단의 설립 취지를 명확히 밝히고 정관, 임원 구성,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하는 등 재단 설립의 주요 정책을 확정했다.

전남도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고 외국인 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타 지역에 비해 사회적 취약계층이 많아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복지재단의 주요 역할은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사회복지 자원의 네트워크 구축·교류 및 협력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전남복지재단기금의 관리 및 운영 ▲도지사 등이 위탁하는 사업 추진 등이다.

전남도는 앞으로 보건복지부에 법인 설립 허가신청과 함께 등기를 마무리하고 창립이사회에서 임직원 채용, 사업 계획 및 예산 등을 확정해 9월 중 재단을 출범할 계획이다.

복지재단 설립은 복지 사각지대와 복지 불평등 해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배양자 전남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복지재단 설립을 계기로 도민의 복지 체감도는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전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그동안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 이미 설립해 운영되고 있는 타 시도 재단 운영사례를 분석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복지 관계자들과의 공청회를 개최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고흥 녹동항에 단지형 아파트

선시공 후분양 '아-그린' ... 견본주택 오늘 개관

고흥군 도양읍 녹동항에 선시공 후분양 아-그린 아파트 150세대의 견본주택이 5일 개관한다.

시행사인 경보건설(주)이며, 시공은 계열사 삼보건설(주)이 맡은 이 아파트 단지는 현재 8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녹동항의 신주거 지역에 짓고있는 아-그린 아파트는 오는 11월 입주 예정에 두고 있으며, 4bay 특화설계, 주차관제, 홈오도시스템, 주방액정TV폰, 대형 불박이장, 최상층 옥탑방 및 야외테라스 설치 등 입주자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했다. 특히 고흥군에서는 최초로 선보이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의 부대시설을 갖춘 '단지형 아파트 <조감도>'라는 점이 주목을 받고있다.

노후주택과의 차별화를 위해 멀리서도 단지를 식별할 수 있는 옥탑LED조명을 설치했으며, 전세대 남향배치, 녹동항과 소록도를 감상할수 있는 조망권 등이 탁월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고흥지역에 단지형 아파트의 신규주택 공급이 전무한 상태에서, 아-그린 아파트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청약 1순위는 해당 지역 내 3년 이상 거주자, 청약 2순위는 해당 지역 내 1년 이상 거주자, 3순위는 해당 지역 내 1년 미만 거주자다. 시행사 경보건설(주) 분양사업부 관계자는 "고흥군 도양읍(녹동)의 신규 주택 공급으로 인해 지역 주거문화가 혁신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문의 061)844-4999 /고흥=주경중기자 gju@kwangju.co.kr

완도군·해남군 '2014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협력

업무협약 체결

완도군과 해남군은 3일 완도군청 상황실에서 '2014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등 상호협력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철환 해남군수와 박희재 해남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해남군 기관 사회단체장과 김종식 완도군수, 김정열 완도군의회 의장, 해조류박람회 범군민지원협의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은 해조류박람회 홍보영상물 시청과 업무협약 체결,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으로 해남군과 완도군은 상호 돈독한 신뢰를 바탕으로 양 자치단체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상호협력 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특히 협력사업 및 공동추진 사업은 협조체제를 구축한 물론, 2014년 완도국제

해조류박람회를 홍보하며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격변하는 시대에 지자체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야 하며 해남군과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돈독한 우호관계가 유지되어 양 지역이 공동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웃 자치단체가 상생하기 위해 협력사업이 요구되는 시기에 맞춰 해남군과, 완도군, 진도군이 서남권광역화장장을 공동 건립해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인근 지자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2014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체결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ejchung@

목포 외달도 해변

8월31일까지 운영

목포시는 4일 "대표적인 여름 휴양지인 '사랑의 섬' 외달도 해변을 5일부터 8월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외달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해수욕장이 위치해 있고, 한옥민박, 해안산책 데크시설, 해변원두막, 그늘막, 파고라 등이 조성돼 있다. 또 해수욕장 주변에 코스모스와 메밀꽃 발등 화해단지 2만5000㎡가 조성되어 있고, 전복, 소라, 촌돔 등을 맛볼 수 있는 음식점들이 있어 여름철 최고의 휴양지로 꼽히고 있다.

시는 외달도 해변 관광을 위해 20일부터 8월11일까지 주말 8차례에 걸쳐 외달도 해수욕장에서 관광객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주말 공연과 이벤트를 개최한다는 것이다.

또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해 목포해양경찰서와 협조체제를 구축, 구조전문요원과 연안구조정을 배치하고, 해변 치안관리를 위해 순찰요원을 24시간 상주하도록 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kwangju.co.kr



창업 31주년 KOBICO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
고품격 웨딩의 메카 **신양파크호텔!!**

Shin Yang Cool Wedding

그 누구보다 특별한 당신, 영원히 기억될 웨딩을 위한 완벽한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특별할인

7~8월 웨딩 확정시 | 뷔페 ₩ 33,000 ~
스테이크 ₩ 38,500 ~

"신양의 웨딩 인연은 평생을 회원으로 이어갑니다"

-신양헤니문카드 특전-

- 객실이용시 40% DC (금토공휴일 전날 30% DC)
- 연회 및 레스토랑 이용시 10% DC
- 직계 가족 웨딩시 10% DC
- 결혼기념일 당 호텔 방문 시 케이크 무료제공 및 레스토랑 이용시 50% DC
- 휘트니스 사우나 이용시 40% DC
- 제과 전품목 20% DC

Shin Yang Park Hotel

예약문의 062)221-4101~3